

# 대학평의원회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6.03.31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 9명

1. 회의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이명환, 김택균, 양용원, 이명구, 박종운, 김원수, 황철하, 김석주, 김태환

나. 불참의원 : 장수진, 김흥수

### 4. 회의안건

제1안 : 2015회계년도 교비결산(안) 자문

제2안: 2016년 제2차 학칙개정(안) 심의

### 5. 회의내용

(의 장)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참석해주신 대학평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평의회 부의 안건인 2015회계년도 교비 결산(안)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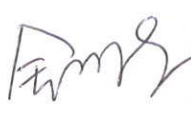

(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 장선훈입니다. 2015회계년도 대학 교비결산(안)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교비 세입세출총액은 8백8억4천7백4십2만2천원으로 세입부분 중 등록금 수입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단기수강료 등으로 전기대비 약 1억 7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입 및 기부수입 중 일반기부금은 2015년도 고액기부자 증가로 5천만원 증가하였고 지정기부금은 약2천여 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중 국가장학 1유형의 예산증가로 전기대비 약 1억4천만원 우리대학 학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대수입으로는 수업료, 증명료, 생활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 있으며, 대여료의 전기대비 상승요인은 생활관 1인실을 신규로 운영하면서 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외수입 중 예금이자 상승분은 토지 매각대 자금유치에 따른 증가분이고 잡수입은 학생복지사업인 구내서점과 구내식당을 직영전환하면서 수입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수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중 중요사항은 관평동 토지 매각과 기자재 및 비품 불용 처리에 따른 기계기구 매각대 수입이 있습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	---	------------	---	------------	---

그 외 고정부채입금으로 기숙사보증금 수입이 있습니다.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선급 법인세, 미수금, 예수금, 선수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부분에서 전기대비하여 1억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전기대비하여 10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구학생경비의 특징으로는 학생경비가 2억3천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메르스로 사태로 인한 해외자원봉사 등의 취소와 학생관련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교육외비용,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장) 상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고, 2015회계년도 교비결산(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균) 결산서 상에 토지매각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토지매각대는 2013년도에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매각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2015년도에 처분완료한 사안입니다.




(김택균) 미수금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건데 매년 누증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총무팀직원) 미수금은 등록금의 카드결제와 분납분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다음회계년도에 모든 금액이 회수되므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종운) 학생복지사업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이익을 계산해 보았는지 또한 서점이나 식당과 같은 영리사업을 대학에서 직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총무팀장)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서점 같은 경우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만, 시중가 대비 책의 할인율을 높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식당부분에서도 수익금은 발생했지만 초기투자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제 운영상 수익은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익의 개념보다는 학생들 복지차원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외주업체의 식단의 질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직영을 하는 것이므로 2-3년 더 운영해보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익사업이 아닌 집단급식소 개념이므로 내부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균) 학생식당과 학생서점은 경제적 관점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것보다는 직영을 하면서 학교의 이익은 적게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만큼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므로 결국 이익금을 산출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면서 서점은 학생들에게 도서를 할인해 주고 식당은 음식의 질로 보답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	---	------------	---	------------	---



(이명구)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식당이나 서점을 직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지만 그 이익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 실제로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실적 등을 명시할 수 있는지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총무팀장) 현재는 구조상으로 좀 어렵고 차기년도에 자료(데이터)를 구체화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균) 이의원의 말씀은 학생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이익금의 일부라도 장학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익금을 최소화하면서 위탁 마진을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만족도가 높은지도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 장) 구내서점과 구내식당의 1년에 대한 결산이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학생들의 평가를 묻고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 개선결과를 홍보하면서 대외적으로 학생복지를 위한 사업임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영리사업처럼 보이지만 운영상으로는 학생복지사업임을 명확히 하여 만족도 결과를 학보(학교신문)에 올리는 것을 고려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운) 결과적으로 결산서상으로 나타난 이익이 1억5천이 있어서 외견상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학생복지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 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회계년도 교비결산(안)은 원안대로 자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 동의와 재청이 있는 후 의장이 이의가 없는지 묻다.(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그러면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 자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제2안인 학칙개정안은 의원들의 심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무부서에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지원팀장 김경한 인사드립니다. 금번 학칙개정안은 2014학년도 수능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당초 불합격된 학생이 추후 타 대학에 합격하여 결원이 생긴 대학에 대해서 그 결원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대학 학칙 제5조의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121명으로 당초 120명에서 1명을 추가하였는데, 교육부의 의견이 모집인원은 1명이 추가되었으나 입학정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임이 확인되어 학칙 제5조의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다시 12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7조의 성적의 취소에서 성적의 취소는 출석미달이어서 "F"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해서 "D" 이상의 성적을 부여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오해하여 성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해당 호를 삭제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오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	---	------------	---	------------	---

(김택균) 교육부에서 이미 특별법으로 정해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논할 여지는 없는 것 같구요... 그런데 제47조의 출석미달 학생의 성적은 "F"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 성적의 취소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오히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이 삭제하여 주어도 괜찮다는 내용이라고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출석미달여서 "F"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학적부에서 성적을 교수님께서 삭제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F" 맞은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무지원팀장) 이 조항은 교수님들이 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학생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이 조항 때문에 혼란이 생길까 하여 미리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원들) 이제 어느 정도 개정안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의 장) 금번 학칙개정안에 관해 다른 심의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학년도 제2차 대전보건대학교 학칙개정안은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심의(안)대로 확정 선포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 의원, 김원수 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다. (회의를 종료하다. 11:55분 산회)

2016년 4월 12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 이 명 환

부의장 : 장 수 진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이 명 구

평의원 : 박 종 운

평의원 : 김 원 수

평의원 : 김 흥 수

평의원 : 황 철 하

평의원 : 김 석 주

평의원 : 김 태 환